

KT, ‘스카이십’으로 전세계 아동보호 나선다

유니세프와 업무협약 체결 무인비행선으로 아동 노동 근절

KT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아동보호를 위해 무인비행선인 ‘스카이십’을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KT 스카이십은 비행선과 드론의 장점을 결합한 무인 비행선으로, 최대 풍속 13m/s 바람에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고 최대 속도 80km/h로 주행한다. KT는 스카이십에 원격관제·조종·통신, 풀HD 영상 수집, 의약품 운송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협약에 따라 KT와 유니세프는 내년 초 아프리카 가나에서 지형 분석을 통해 디지털 맵을 생성하고 아동 노동을 근절하는 데 스카이십을 활용하기로 했다. 디지털 맵핑은 지형 데이터 이미지를 분석해 디지털 맵



KT-유니세프 MOU(왼쪽부터) KT 지속가능경영단 이선주 단장, 빅데이터사업지원단 윤혜정 단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기철 사무총장, 유니세프 본부 기금모금국장 호르헤 올라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을 생성하는 기법이다.

KT 빅데이터사업지원단 윤혜정 단장은 “KT와 유니세프의 협약은 빅데이터와 드론 등 KT의 ICT 기술이 아동보호 분야에

기여하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아동보호와 글로벌 보건 안보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silkni@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SK하이닉스는 4일 서울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2019 반도체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아이디어 공모전은 반도체 기술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에 혁신 아이디어를 묻는 행사다. 2017년부터 매년 이어왔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우수 아이디어 17개를 선정해 총 상금 2억6500만 원을 수여했다. 올해에는 IT 분야를 신설해 5개 분야에

서 아이디어를 모집했으며, 전년보다 2배나 많은 아이디어가 응모했다.

최우수상은 저온 성장 나노 다공 구조 공정 개발을 제안한 충북대 이현석 교수와 효율적 테스트 방법을 제안한 연세대 강성호 교수가 받았다. 2건이 최우수상을 함께 받은 것은 공모전 최초다. 그밖에 우수상 4건, 장려상 6건, 열정/패기상 5건 등이 뽑혔다.

SK하이닉스는 시상한 아이디어를 지식재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17개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SK하이닉스

산권으로 출원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면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우 기자 juj@

중국이 AI 강국 된 이유



기지 수첩

채윤정 (산업부)

슬인 얼굴인식 기술이 발달하기 힘들다. 의료 분야 규제도 기술적으로는 준비가 다 된 원격진료 서비스도 요원하다.

인공지능(AI) 강국을 뺏을 때 IT 선진 기업들이 자리 잡은 미국 외에 뺏을 수 없는 국가가 중국이다. 심지어 중국이 AI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우리나라는 2000년 초반만 해도 단연 IT 강국으로 손꼽혔지만 AI에서는 아직 후진국으로 중국의 AI의 성공은 부럽기만 하다. 국내 AI 전문가들과 중국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 중국의 AI 성공은 ‘시장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AI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공급이 원활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한 AI 기업의 대표는 “AI에서 빅데이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많은 제약을 받지 않고 정부가 원하는 데이터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정보보호법 등의 제약으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이므로 CCTV도 보안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AI 대표기

AI 기업이나 협회에서 두번 째로 꼽는 성공요인은 중국의 AI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다. 중국은 나라가 크기 때문에 시장도 큰 데다 중국 정부가 아낌없는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AI 분야에 수백억을 투자한다고 해도 부서별로 예산이 나눠지고 결국 한 기업에 배당되는 금액은 1억원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한 기업에 1000억원 정도씩 투자되기 때문에 유니콘 기업으로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AI 성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정부의 규제가 완화돼야 빅데이터가 활성화돼 AI가 기술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또 AI 스타트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기술력이 탄탄한 기업에는 ‘생생내기식 지원’이 아닌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R&D에 집중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5년도 못 돼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년에 대다수 AI 기업들이 4년 차에 접어들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더 절실하다. /echo@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6일 (음 10월 1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빌려준 돈이나 선물을 받는다. 48년생 나이 드는 것이 서글프다. 60년생 사생하는 사람이 많으니 소문나지 않게 조심. 72년생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와 배려는 큰 힘이 된다. 84년생 언쟁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 힘들다.
37년생 슬픈 일은 이제 잊을 때가 되었다. 49년생 내 것이 작아 보여도 소중한 것. 61년생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를 위한 날. 73년생 동상 걸린 발을 얼음물에 담그는 격. 85년생 오늘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내일이 편하다.
38년생 공들인 답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50년생 길을 나서면 상비약을 챙겨라. 62년생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 74년생 주변인과 견해 차이로 손해가 발생하니 내가 양보해야. 86년생 청색, 손수건이 오늘 행운의 색상.
39년생 떠나기도 머무르기도 힘들다. 51년생 고달픈 나를 위해 장미를 선물. 63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누가 알겠는가. 75년생 친구와의 대화중 자존심이 상한다. 87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행운의 날.
40년생 자식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행동. 52년생 운이 상승하는 날이니 거래가 순탄. 64년생 지고도 이기는 것이 있으니 양보가 미덕. 76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 88년생 오후에 반가운 소식이 온다.
41년생 지갑이 비었으니 비상금을 활용. 53년생 아개를 으쓱할 일이 생긴다. 65년생 먼저 용서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는다. 77년생 이별에 대해 흐르는 것을 막아서지 마라. 89년생 바보 같은 선택이었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42년생 목심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54년생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열심히 살자. 66년생 가족도 서로 노력하며 만들어 가는 것. 78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은 천근만근이다. 90년생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43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온다. 55년생 사기 운이 있으니 도장 찍는 일은 신중히. 67년생 죽은 나무에 물주는 이제 그만. 79년생 횡재수가 있으니 복권이라도 한 장 구입. 91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못한다.
44년생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라. 56년생 소소한 적선이 더 큰 보답으로 온다. 68년생 눈에 멀어진다고 마음도 멀어지는 것은 아니다. 80년생 무리한 지출로 마음이 불편. 92년생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
45년생 인색한 구두쇠는 3류 인생. 57년생 진실이 매번 옳은 것은 아니다. 69년생 어린 친구를 만나 귀한 정보를 얻는다. 81년생 파란 하늘이 그림과 비벌 언덕이 절실. 93년생 나에겐 자랑이지만 남에겐 꿀볼건일 수 있다.
46년생 자식사랑에 지갑이 열린다. 58년생 껌질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라. 70년생 종로에서 뽕맛고 한강 가서 눈 흘길 듯. 82년생 정치나 종교에 관여 말자. 94년생 오늘의 기쁨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
47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접는 것이 상책. 59년생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하루가 된다. 71년생 삶의 중심에 항상 자신을 두라. 83년생 일시적 감정으로 일을 그르칠 수 있다. 95년생 중이 절이 싫으면 자신이 떠나라.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x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Large grid of Sudoku puzzles with numbers in various cells, including a 3x3 sub-grid.

스도쿠 정답 (Sudoku Solution) grid with numbers filled in.

김상희의四季 미리 걸어본 길
어김없이 입시의 계절이 왔다. 대학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내년 2월 말까지 부모들의 마음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 동분서주하며 자식이 좋은 학교 원하는 학교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담은 한 어머니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상담을 청했다.
딸의 대학교 진학에 관한 고민이었다. 딸은 2년 전에 수능성적에 맞춰 대학교에 입학했다. 독일어를 전공한 딸은 1학년을 마치고 독일로 여학연수를 떠났다. 1년 예정이었는데 딸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돌아오고 말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학이 자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를 자퇴한 딸은 다시 대입 공부를 시작했다. 다행히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와 기대가 크다. 원하는 학교에 충분히 입학할 만한 수준이어서 한시름 놓은 상황인데 엄마의 걱정은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보다 너무 늦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상담을 청한 어머니 사주를 우선 짚어 보니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자녀를 보는 궁이 시주인데 자녀가 영민하고 나중에 자기의 자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보인다. 딸의 사주도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편관이 용신으로 머리가 좋고 일을 추진할 때 과감하다.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도 두려워 않는다. 이런 사주이기에 독일까지 갔다가 스스로 돌아왔을 것이다. 자기의 길을 찾겠다고 과단성 있게 결심하고 즉시 귀국한 것이다.
사람의 인생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행로이다. 딸은 대입이란 고비를 지나 잘 풀려나갈 운세를 보여준다. 미리 굽어본 길을 걸어본 것이라 늦은 게 아니라 더 많은 경험을 했기에 더 탄탄한 길을 걸을 수 있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431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20호